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과 한국인 은퇴이주의 조우(遭遇)

A Study of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Encounter between Malaysian Migration Policy and Korean Retirement Migration in Malaysia

홍석준

목포대학교 문화인류학과

Suk-Joon Hong(anthroh@mokpo.ac.kr)

요약

본 연구는 현대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migration policy)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retire migration)의 조우(遭遇, encounter)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 즉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의 특징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가 어떻게 상호 조우하고, 또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해 이를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의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가 병행되었는데, 특히 현지조사에서는 주요 제보자들(key informants)에 대한 인터뷰(interview)와 관찰(observation)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와 연관시켜 접근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와는 어떠한 상호 관계가 있으며, 그 문화적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 은퇴이주는 MM2H(Malaysia My 2nd Home) 제도 및 은퇴이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자녀교육을 위한 도구로 변용되어 활용되거나 혹은 은퇴이주 자체를 취미활동이나 여가생활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타국으로의 이주임에도 불구하고 은퇴 및 이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없이 입학거나 혹은 낭만적인 기대로 입학함으로써, 결국 대부분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를 대상으로 그 특징과 의미를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인적 교류와 이주를 통한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교류와 협력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술적,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 | 말레이시아 | 이민정책 |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 | 은퇴 | 은퇴이주 | 한국인 은퇴이주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encounter between Malaysian migration policy and Korean retirement migration in contemporary Malaysia. For this purpose, I describe and analyze the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migration policy in Malaysia, and understand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migration policy, especially Malaysian migration policy in Malaysia, and examine and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retirement migration, especially Korean retirement migration to Malaysia in contemporary Malaysia,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The research outcomes of this study are followings. Firstly, because of the misunderstanding and misuse of MM2H(Malaysia My 2nd Home) program and Malaysian migration policy among Korean retirement migrants in contemporary Malaysia, Korean retirement migration in Malaysia cannot be regarded one of the appropriate and effective migration policy for Koreans. It has been utilized as an instrument of their children's education among Koreans in Malaysia. Secondly, in this regard, it has been increased the number of Koreans to return to Korea without any constructive results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their successful retirement lives in Malaysia. It is noted to understand that Korean retirement migration to Malaysia is the movement and migration of the special forms of human migration or hum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Korean retirement migration to Malaysia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cultural phenomena between Korea and Malaysia in contemporary Malaysia. In this sens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be contributed to understand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encounter and exchange between Malaysian migration policy and Korean retirement migration to Malaysia in contemporary Malaysia, and to enhance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alaysia through human exchange and migration, especially Korean retirement migration to Malaysia in contemporary Malaysia.

■ keyword : | Malaysia | Migration Policy | Malaysian Migration Policy | Retirement | Retirement Migration | Korean Retirement Migration |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목포대학교 교내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6년 03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4월 18일

수정일자 : 2016년 04월 18일

교신저자 : 홍석준, e-mail : anthroh@mokpo.ac.kr

I. 서론¹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한국인들 중 평화롭고 안락한 노후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보내기 위해 ‘은퇴이주’²를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을 위시하여 동남아시아로의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의 숫자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들이 이민을 고려하는 국가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의 특징과 의미를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MM2H: Malaysia, My 2nd Home, 이하 MM2H)”³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말레이시아 이민정책과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의 만남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명예퇴직 또는 은퇴자들의 주종을 이루는 50대와 60대에 속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은퇴이주 대상국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0년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을 신봉하는 말레이인을 비롯하여 화인(華人, Malaysian Chinese)과 인도계(Malaysian Indian), 동 말레이시아 사라왁(Sarawak) 주의 이반(Iban) 족, 사바(Sabah) 주의 까다잔(Kadazan) 족, 그리고 오랑아슬리(orang asli, 원주민)라 불리는 원주민 등 문화적 다양성과 종족적 복잡성을 지닌 다양한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소위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 ‘다종족사회(multiethnic society)’의 역사와 전통을 오랫동안 보유해 온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이나 거부감, 또는 경계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말레이시아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은퇴이주 대상 국가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수준과 안정된 물가, 안전성이 보장된 치안 상태, 공용어로서 영어 사용 가능 국가, 그리고 다문화(multiculture), 다종족(multiethnicity), 다종교(multireligion)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적 특성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노후 생활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보내기를 희망하는 한국인들에게 최적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이주가 증가하면서 성공적인 이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은퇴이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말레이시아로 이주를 감행한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역이주’ 또는 ‘역이민’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은퇴이주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한계와 또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다시 돌아오면 되는 단순한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인생설계를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현대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조우(遭遇, encounter)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 즉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의 특징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가 어떻게 상호 조우하고, 또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해 이를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의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와 연관시켜 접근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과 한국인들의

¹ 이 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전략지역 심층연구 보고서(홍석준, 2014,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내용을 저본으로 하여 이를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다.

² 본 연구에서는 ‘은퇴이민’이라는 용어 대신 ‘이주’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국제이주의 한 유형으로 ‘은퇴이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동남아시아 은퇴이주자들이 대부분 국적의 변화를 통한 영구적인 의미의 이주, 즉 ‘이민’보다는 장기체류를 위한 ‘이주’의 측면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5].

³ MM2H는 10년 비자 취득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그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다. MM2H 10년 비자 취득 시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사업 허용. 2. 주택 자금 용자(1,000,000링깃 주택 구입 시 80% 대출 가능). 3. 승용차 면세 구입(현시 세금의 40% 할인 혜택). 4. 무심사 비자 연장(10년). 5. 개인 이삿짐 이송 시 세금 면제. 6. 국적에 관계없이 1명의 메이드를 데려오거나 고용 가능. 7. 말레이시아 내 상속 세금 면제. 8. 국외 소득 세금 면제. 9. 비자 승인 최소 8주 가능[10].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와는 어떠한 상호 관계가 있으며, 그 문화적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그 문화적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말레이시아의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다각도로 이해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는 특별한 형태의 인간 이동, 또는 인적 교류와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잇는 중요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를 대상으로 그 특징과 의미를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인적 교류와 이주를 통한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교류와 협력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이 연구를 통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술적,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기존 연구의 검토⁴

은퇴이주에 관한 최근 국·내외의 연구동향이나 연구배경을 살펴보면, 은퇴이주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도시에 머물던 도시 직장인들이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현상에 집중되어 있는데[1-5],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화되었던 농촌으로의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침체된 농촌경제의 활성화라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목적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5]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은퇴 이주 대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개와 상업적 비즈니스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은퇴 이주의 대상지로 동남아시아가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인 은퇴 이주자들에게 동남아시아가 은퇴 이주 대상으로 선호되는 데는 은퇴 후에 보장 받게 될 제한된 소득으로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려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은퇴 이주의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 간 소득격차가 클수록 이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5][6].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이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표방하면서 외국인 은퇴 이주자들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중에서 말레이시아는 정부 주도로 외국인 은퇴 이주자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다.

말레이시아는 1996년부터 은퇴비자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1998년 50명에 불과하던 은퇴비자 수급자 숫자가 2001년에는 800명을 기록했고, 2006년까지 동반가족을 제외하고도 총 8,700명에게 은퇴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5].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과 한국사회의 고령화, 조기 은퇴 또는 명예 은퇴 등을 비롯하여 은퇴 이주자의 증가는 말레이시아로의 은퇴 이주 현상이 한국사회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5].

최근 국내 학계에서도 국제이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이주의 흐름, 이주가 전 세계 국가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관심 역시 매우 크다[6]. 이러한 국제이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이, 국내 학계와 출판계에서는 이러한 국제이주의 전 지구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다룬 책이 최근 들어 속속 번역, 출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주의 시대>와 <이주>라는 책이다.

<이주의 시대>는 <The Age of Migration(제4판)>을 옮긴 것이다. 여기서 국제 인구이동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스티븐 카슬과 마크 J. 밀러는 전 지구적인 이주의 흐름, 이주가 전 세계 국가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 이 책에서 저자들은 국제이주 관련 이론 및 개념 설

⁴ 이 부분에서는 은퇴이주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은퇴이주 일반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주로 은퇴이주에 관한 최근 국내외의 연구동향과 연구배경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언급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들의 장점과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명으로 시작하여 1945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의 국제이주 현황을 살펴보고, 이주와 국가적 통제, 안보, 종족적 소수자, 정치 등의 관계를 분석했다. 총 13개장에서 각 주제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관련 통계 및 이주 흐름을 보여 주는 지도, 별도의 표와 그림 등을 박스로 다룬 구체적인 사례 등을 소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2012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3%(약 2억 2000만 명)는 자신이 태어난 기원 국가를 떠나 다른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3%라는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주의 주체는 주로 개인이기 때문에 이주 및 이주자와 관련된 사회 현상은 차질 간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주 당사자가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궤적과 상황은 정착한 국가는 물론 그들의 기원 국가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이주 및 이주자와 관련된 사회 현상은 나머지 97%에 해당하는 비이주자들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글로벌화와 더불어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는 물론이고, 이른바 고숙련 이주자라고 불리는 기업가 및 연구자, 그리고 유학생과 관광객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단일민족 국가로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이어온 한국 사회는 지금 다문화 사회로의 큰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7].

이와 같은 이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이주 현상과 관련 정책에 관한 이론 및 실천의 문제들을 심도 있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 이주 현상을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한 개론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무엇보다 이주의 사회성과 공간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이주(Migration)> (2013)가 출간되었다. 특히, <이주(Migration)>는 이주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접근을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장소, 스케일, 영역 등과 같은 공간적 개념을 차용하여 지리적 접근을 강조한다[6]. 나아가 정치학, 국제관계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역사학 등 다학문적 차원에서

국제 이주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관점, 이주와 노동, 이주 통제의 지정학적 경제, 이주와 시민권 및 소속의 지리 등에 관한 주제를 종합적이며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새머스 2013). 또한 글상자를 통한 다양한 사례 제시와 용어해설 등은 이주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한층 돕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이주 관련 서적의 연속적인 출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 현상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동남아시아로의 한국인들의 은퇴이주에 관한 이론적, 방법론적 연구와 사례연구는 거의 전무할 뿐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이주 관련, 특히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로의 한국인들의 국제이주에 관한 연구가 보다 체계적인 연구로까지 진행되기 위해선, 앞으로 이에 관한 더욱 더 많은 학술적, 실천적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의 명예은퇴자들을 포함한 은퇴자들을 수용하려는 국내외적 유치경쟁은 주목을 끈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이들을 적극 유치하려는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을 타깃으로 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과 한국인 은퇴이주자들과 연계해서 분석하는 학술적, 실천적 작업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슬로건은 '진정한 아시아'(Truly Asia)이다.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말레이시아, 진정한 아시아(Malaysia, Truly Asia)'라는 문구를 거리와 상점 등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진정한 아시아'라는 말은, 말레이시아가 '아시아의 축소판'이라는 뜻이다. 또 문화적 다양성과 민족적 복합성으로 널리 알려진 아시아 문화의 진수가 말레이시아에 집약되어 있다는 말이다. '아시아 문화 모자이크(Asian cultural mosaic)'는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문화 모자이크(Malaysian cultural mosaic)'라는 축약어로 구현되어 있다. '진정한 아시아', 즉, '아시아 문화 모자이크'의 '진정한' 축소판이 바로 오늘날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슬로건으로 자리 잡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아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은퇴 이후 노후생활을 즐기기 위해 한국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외국인 은퇴이주자들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 입국 요인으로 조기유학과 부동산 투자와 더불어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 은퇴이주라고 말할 수 있다[9]. 말레이시아 정부는, 소위 MM2H 프로그램을 통해 안락한 은퇴생활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찾아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외국인 은퇴이주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특히 한국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를 희망하는 한국인들의 방문이나 체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말레이시아의 이주 정책의 특징과 의미를 MM2H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 주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에서도 외국인 은퇴이주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50대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은퇴 이민 대상국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를 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역시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수요에 비해 관련 정보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의 특징과 의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에 학술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한인 타운인 쿠알라룸푸르 '암팡(Ampang)'과 '몽끼아라(Mon Kiara)' 지역의 한국인 은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로의 한국인 은퇴이주의 특징과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이민과 관련된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에서의 생활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MM2H의 특징과 의미를 그 내용과 실천에 주목하여 고찰하고, 그 이상과 현실을 은퇴이주자들과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에 대한 기술과 분석을 통해 맥락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의미에 대한 1차적 자료의 수집과 분류, 정리를 기초로 하여, 이를 기술(description)하고, 분석(analysis)하여, 해석(interpretation)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기존 문헌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결과와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해석을 포함시켜, 1차 자료와 2차 자료에 대한 기술과 분석의 융합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문화적 특징과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우선 이민정책과 관련된 문헌 조사를 실시했다. 사전에 이민박람회 관련 인터넷 자료 역시 적극 활용했다[11-14]. 또 문헌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했다. 특히, 실제 말레이시아로 은퇴이주를 떠난 사람들이나 말레이시아 행정기관을 찾아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시도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은퇴이주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검토는 은퇴이주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위주로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문헌조사에 바탕을 둔 문헌연구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로의 한국인 은퇴이주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선 현지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⁵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현지조사의 질적 방법을 적절히 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은퇴이주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의미, 동향과 흐름, 나아가 전망에 대한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이주 관련 정책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국인들

⁵ 현지조사에는 인터뷰(interview), 특히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및 관찰(observation) 등이 포함된다. 참여관찰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심층 인터뷰와 관찰에 집중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 집중하고자 했다.

의 말레이시아로의 이주 관련 문헌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행하였으며, 나아가 관련 인터넷 자료 역시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나아가 MM2H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는 인터넷 자료와 신문기사들, 문헌 조사, 그리고 현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관련 자료에 대한 수집, 분석 및 정리 작업이 수행되었다.

은퇴이주 국가로서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실제 말레이시아로 은퇴이주를 떠난 사람들이나 말레이시아 행정기관을 찾아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얻어야 하므로, 인터뷰 방법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질적 연구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자료 수집의 형태로 정보를 유도해 내기 위해 사전에 계획하고 형식화한 것이다. 이러한 인터뷰를 활용하여 실제 현지인들의 생생한 조언이나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주요 정보제공자(key informants)의 시간을 고려하여 인터뷰가 너무 길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질문에 대한 사전 준비와 인터뷰 계획을 사전 조직화했다. 인터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전적으로 정보 제공자들(informants)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인터뷰 시 정보 제공자가 질문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듣고 의미 있는 대답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애매모호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질문은 가급적 피하고자 했다.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양적 자료를 통한 정보 수집 보다 심층적이고 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연주 주제의 특성 상 이전의 자료를 통한 실제 면담을 통해 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답사 이전에 관련 전문가나 면담 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새롭게 얻게 되는 정보나 특별한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면서 진행하였다. 사전 조사한 내용 이외의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면서 자료의 양이 풍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그런 점들을 유념하도록 했다.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은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과 해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는 2014년 1월 20일(월)부터 28일(화)까지 약 10일간, 그리고 2014년 4월 18일(금)부터 4월

22일(화)까지 약 1주일간에 걸쳐 쿠알라룸푸르의 암팡과 몽끼아라 지역의 한국인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2014년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보충 현지조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하였다.

현지조사 기간 중에 쿠알라룸푸르 행정청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MM2H 비자와 관련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쿠알라룸푸르의 행정 담당자를 만나 말레이시아에서 은퇴이주를 위한 이민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심층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교민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 현지 교민들과의 인터뷰를 위해선 은퇴이주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대표적 사이트인 cafe.naver.com/mymalaysia의 자료 내용을 적극 활용하되, 그 자료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비판적 관점에서 비교 체크한 후 활용하기도 했다[8].⁶

본 연구에서는 은퇴이주 정책 및 관련 자료 역시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통계청, 외교통상부, 말레이시아 관광청, 기타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의 은퇴이주 정책과 통계조사 내용과 자료의 성격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정리, 분석함으로써 말레이시아가 어떤 이민정책을 택하고 있고 타국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다.

은퇴이주에 관한 문헌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은퇴이주라는 개념은 경계가 발전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대 이후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은퇴이주는 아직도 자료와 문헌 등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에 몇 개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기에 논문 및 다양한 정보를 조사하여 충분한 정보의 양을 확보하도록 했다. 해외이민박람회를 방문하여 관계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개최된 해외이민박람회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자료는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관련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다.

⁶ 본 연구의 결과는 말레이시아를 새로운 은퇴이주 대상으로 삼고 말레이시아를 찾는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IV. 연구결과⁷

1. 한국인들의 은퇴이주 대상지로서 말레이시아와 MM2H의 일반적 특징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에 속하며, 치안이 가장 잘 정비되어 있어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보다 격조 높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매혹적인 주위환경과 다양한 음식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문화까지 즐길 수 있다.

MM2H 프로그램은 은퇴 이후 말레이시아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이주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기획되어 실시된 말레이시아 이민 정책의 주요한 일부이다. 10년 장기 체류비자와 거주공간과 차량을 구입할 때 받는 세금 면제 등은 MM2H가 제공하는 수많은 혜택 중 일부에 불과하다. 수천 명의 은퇴자들이 이미 현지의 친절한 이웃들과 더불어 교민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은퇴 생활은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삶이자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나서서 말레이시아 현지로의 은퇴 이민을 적극 장려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안락한 노후생활지로서 말레이시아를 선택하는 데도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 우선 여가 생활에 적합한 열대성 날씨를 들 수 있다. 둘째, 급격하게 부상하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들 수 있고, 셋째 가족 여행지로서의 매력적인 조건이다. 즉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생활을 추구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에게 말레이시아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비해 생활비가 다소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치안상태와 영어통용도가 높은 수준이며, 다문화, 다종족의 특성으로 인해 의식주 문화가 다양하고, 한국에 비해 골프 등 레저스포츠 시설이 풍부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웃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 은

퇴이주지로서의 조건에서 손색이 없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한류 열풍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호의적인 평가,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인 말레이인을 비롯하여 화인과 인도계, 동 말레이시아 사라왁(Sarawak) 주의 이반(Iban) 족, 사바(Sabah) 주의 까다잔(Kadazan) 족, 그리고 오랑아슬리(Orang Asli, 원주민)라 불리는 원주민 등 문화적 다양성과 종족적 복합성을 지닌 다양한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소위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이자 '다종족사회(multiethnic society)'이기 때문에 한국인 은퇴이주자들도 '외국인'이라는 주변의 시선을 받지 않고 비교적 쉽게 현지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암팡'이나 '몽끼아라'는 한국 교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말레이시아의 코리아타운(Korea Town)으로 불리는 '암팡에비뉴(Ampang Avenue)'에는 한국 상점이 모여 있고 한국 대사관 주위에 말레이시아 화인자본이 한국의 건설 업체와 손잡고 개발 중인 복합주거단지가 현재 분양 중에 있다. 또한 동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페낭(Penang)은 해양 생활과 운치 있는 경관을 좋아하는 은퇴자라면 고려해 볼만한 아름다운 지역이다. 스쿠버다이빙, 등산 등 다양한 레저생활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그 시스템과 의료 전문 인력의 숙련도 측면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아 세계 3위의 의료관광지로 선정 되었다. 말레이시아는 무엇보다도 자연 경관이 빼어나고 생활비가 저렴하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은퇴이주자들을 유치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춘 나라이다.

더욱이 MM2H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외국인의 은퇴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약 1500명의 한국인이 MM2H 비자를 발급 받아 말레이시아에 거주 중이다.

한편,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 입국 요인으로 조기유

⁷ 이 부분에서는 연구결과에 관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순서를 조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했다.

학과 부동산 투자와 더불어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 은퇴이주라고 말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MM2H 프로그램을 통해 안락한 은퇴생활을 위한 탁월한 선택으로 말레이시아를 찾아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외국인 은퇴이주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특히 한국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를 희망하는 한국인들의 방문이나 체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이주 정책의 특징과 의미를 바로 이 MM2H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MM2H는 일종의 장기 거주비자라는 개념과 동일시된다. 말레이시아에는 이민제도가 없어 거주를 위해서는 노동비자를 필수로 요한다. 하지만 MM2H를 통하면 노동 비자 없이도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력만 증명되면 장기거주를 허가받을 수 있다.⁸ 이는 한마디로 말레이시아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외국인들의 은퇴이주를 유치하고자 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야심찬 정책이다. 2006년에는 총 65건의 한국인 MM2H 비자신청이 있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던 2001년 이후 2006년 말까지 6년 간 모두 213명의 한국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데 반해, 2007년 한 해 동안에는 152명이 비자를 신청하였다. 2008년에는 매달 약 700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 신청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인들에게 MM2H의 인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MM2H 프로그램은 은퇴 이후 말레이시아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이주 정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 구입 시 특전이 있다. 주택 구입을 알선하고 임대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또한 주택 입주 시

필요한 전화와 인터넷, 아스트로(Astro, 위성TV) 등의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2. 말레이시아 은퇴이주의 특징과 의미: MM2H의 허상과 실제

1) MM2H의 특징과 그 변용

여기에서는 말레이시아 은퇴이주의 특징과 그 의미를 MM2H의 허상과 실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점을 MM2H의 특징과 그 변용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MM2H는 한국인들의 조기유학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조기유학 여건은 최근 은퇴이주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 즉 조기유학의 통로로 원하는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어려운 경우, 부모가 아예 은퇴이주를 선택하여 장기 거주하면서 원하는 국제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자녀의 돌봄과 관련되어 MM2H가 변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에 자녀를 조기유학의 명목으로 홈스테이가정에 맡기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은퇴이주와 조기유학의 관계에 대해 한 한인회 관계자(남, 48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기유학으로 말레이시아를 찾는 사람들은 생활소득이 중하정도 되시는 분들 특히 부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략) 요새 유학이라는 게 옛날에는 공부하려고 유학가지, 요새는 공부하려고 유학 가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부모가 케어가 안 되니까 애들을 외국에다가 갖다 버리는 겁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되죠. 가만히 따져보니까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영어를 한다더라. 거기 싸니까 거기로 보내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말레이시아로 많이 왔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교민경제는 좋아졌죠.”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자녀의 부적응적인 양상과 조기유학생의 상황을 경제적 이득의 논리로 접하는 일부 교민들의 문제로 부각되기도 한다. 그 정도가 심각해지면 간혹 조기유학생의 어머니들이 MM2H로 말레이시아로 이주하여 자녀를 돌보기 시작하는 경우도 생기는

⁸ 참고로, MM2H 프로그램은 기준 시한인 5년이 완료된 후에도 본인이 사회비자(social visa pass)를 갱신하거나 이후 한 달이 채 안 걸리는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개인은 최근 5년 동안 10만링깃(한화 약 3천5백만원)을 갖고 있거나 외국에서 7천링깃 이상의 고정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가족은 50살 이상으로, 최근 5년 동안 15만링깃을 갖고 있거나 외국에서 1만링깃 이하의 고정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에 포함될 경우다. 50살 이하의 최근 5년 간 매년 30만링깃을 갖고 있거나 외국에서 1만링깃 이하의 고정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이들은 여권용 사진2장과 여권 사본, 신분 증명서, 결혼/출생증명서, 수입 증명서, 재무 문서, 학생 비자, 고용 허가서, 유효한 의료 보험증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서 양식은 이민국, 말레이시아 여행사나 말레이시아 관련 공무 대리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데, 그 역시 초기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거나 혹은 가족 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여기에 온 엄마들은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영어가 안 되니까 집에 전화벨 울리면 놀래서 전화도 못 받아. 헬로우 하면 이거 뭐라 그래. 전화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엄마들이 온 거예요. 애들 학교 가면 엄마들은 여기서 뭐해. 그래서 남편한테 매일 전화해 나 한국갈래 여기 못 있겠어. 남편은 큰일 나는 거야. 애, 케어 하는 거 힘들면 좀 힘 좀 주고 거기서 골프나 배우고 좀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골프 배우면서 사람들 만나잖아. 그래서 물러다니는 거야.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전화를 집에 해. 자장면 시켜줄까. 짜장 면먹고 이러다보니까 엄마들은 적응이 되니까 좋은 거야. 나중에 남편은 짜증이나. 도저히 혼자 못 있겠어. 들어와라. 나 못 간다. 그때는 못하는 거예요. 안가는 거지. 못하는 거지. 애들은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국제 학교 가면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애들은 너무 좋은 거야 여기가. (중략) 이제 계속 생활비계속 올라가니까 아빠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 떨어지면 못 있잖아요.”

경제위기로 환율이 오르고 한국에서의 상황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흐를 때 조기유학 혹은 은퇴이주를 주된 목적으로 조기유학을 온 가정들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부적응 양상을 보이는데, 그 예로 피면접자는 말레이시아 은퇴이주와 자녀교육과의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지금은 조기유학 오는 애들보다는 대학으로 오는 애들이 훨씬 많죠. 대학으로 오는 애들이 거의 육칠백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대학생 등이 유학을 많이 오거든요. 요새 이슈가 대학이죠. 비자 문제라든지. MM2H가 있는지도 예전에는 몰랐죠. 말레이시아에 이제 2, 3년부터 이 나라 학교 애들이 한국유학 애들한테 홍보하고 나서 어휴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무지하게 들어와요. 학생들 대학생들이 무지하게 늘었어요. 매년 여름에 어학연수 한다고 계속 들어오고 있죠.”

한편, MM2H는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 내 부동산 구입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불로소득과 외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과시욕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MM2H를 통한 부동산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말레이시아에서의 부동산 매매가 한국과 법률과 세제가 달라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언어문제와 신뢰할만한 중개체계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로 난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실 말레이시아 부동산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전하죠. 일단은 외국 사람들은 소유가 보장되니까요.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다 소유할 수도 있고 사고팔고도 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은 상당히 안전한 거래예요. 그래서 MM2H를 부동산 사는 데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이 한국인들 사이에 부동산 구입을 위해 MM2H 비자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MM2H가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 내 부동산 구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내 부동산 투자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사실과 외국인으로서 한국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MM2H 비자를 부동산 구입을 통한 불로소득의 증대와 이를 통한 과시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MM2H의 명과 암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MM2H를 통한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 부동산 구매와 투자는 언어의 문제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이민제도와 법률체계 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를 장려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2) MM2H의 허와 실⁹

여기서는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실상과 허상을 다룬다. 다음은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와 MM2H의 허상과 실상, 그리고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은퇴이주 전에) 저는 원래 직장 다니고 와이프가 직장에 다녔거든요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

⁹ 이 부분에 대한 기술과 분석 및 해석은 이에 관한 기존 연구의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민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같은데 해봤는데 뭐 나이가 많아서 불리하더라고요. 나이, 학력, 무슨 머 결혼 이런 것. 나이가 많으니까 영어실력이 그렇고 호주도 한번 해 보려고 미국에 아파트도 하려고 했거든요. 미국은 의심스러워서 말레이시아를 선택했어요. 마지막 전 재산까지 다 팔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에 MM2H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몰랐어요. 말레이시아가 제 2차 세계대전에 나오는 열대 정글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 말레이시아 학생이 있더라고요. 말레이시아 괜찮다고. 요즘에 미국 대신에 많이 간다고 해서,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짐 싸들고 온 거죠. 직장 2년 남겨놓고 왔어요. 그리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위의 사례는 말레이시아 은퇴이주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이주를 결정한 경우는 아니다. 조기유학생의 부모들처럼 외국생활에 대한 동경과 노후에 자신의 꿈을 이뤄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과감하게 은퇴이주를 결정한 경우이다. 그러나 단지 이런 자신의 노후계획만이 이주를 결심하게 한 동기는 아니다. 그 다른 한편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과 영어에 대한 열망이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다.

“너무 한국에만 살면 답답하고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이 어렵고 졸업해도 취직하기 힘들고 외국 나와서 사는 게 어떨까 해서. 한국에서는 영어로 인한 어려움은 그리 크지 않았는데, 여기 오니까 영어가 중요하더라고요. 영어로 말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말도 배우고 일부러 말레이 사람들이랑 놀러 다니고 한국인은 별로 안사귀고 주말엔 말레이시아 사람들과 낚시나 등산가고 했어요. 페이스북을 영어로 하거든요. 페이스북을 하나까 말레이시아 산악회가 많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이 정글에서 무슨 산악을 할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레이, 차이나 사람, 차이니스, 인도인 여기는 다국적 사람들도 많아요.”

이와 같이, 은퇴이주의 또 다른 목적 중 중요한 것으로 자녀교육을 들 수 있다. 조기유학을 통한 자녀교육은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온 목적 중 하나는 애들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라서

애들 뒷바라지 할 거 없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말레이시아가 좋은 이유는 영어 배우는 데 좋지요. 영터리 영어라도 미국에서 통하나 봐요. 영어권이라서.”

이와 같이, 은퇴이주로 말레이시아를 찾은 한국인들에게 MM2H는 원래의 목적과 달리 이용되고 있다.

“제가 처음에 답답한 마음에 MM2H를 주도하기도 했어요. 굿모닝 말레이시아에 모집공고를 내니까 처음에 열댓 명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처음 이제 열댓 명이 왔는데 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원래 은퇴이주라는 게 50세 이상이라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증금만 주면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비싸지죠. 보증금이 우리 같은 50세 이상에게는 15만링깃, 50세 이하에게는 30만링깃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돈도 있겠다, 딱히 할 일도 없겠다, 애들 교육은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첫 모임을 가졌는데, 한 서너번 하다가 결국 해체되고 말았어요. 해체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 MM2H로 온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한 3분의 2는 돌아갔어요. 실패한 거죠. 막연히 말레이시아 가면 안 됩니다. 골프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매일 골프만 합니까?”

하지만 MM2H의 장점도 있다. 그것은 한국인 은퇴이주들 사이에서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저는 이곳에 2007년에 왔는데, MM2H 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어요. 모임 참석자들 중에 2010년에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석 달 만에 돌아간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는 오고 싶는데 와이프는 죽어도 싫다고 해서 석 달 만에 차랑 집까지 샀는데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MM2H가 한국인들 사이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우선 언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인들의 언어문제와 MM2H의 변용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예요. 언어가 제일 문제죠.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하는데 잘 안 해요. 저는 외향적으로 놀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손짓 발짓 하면 되 그거를 잘 안하는 거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쓰는 영어 보면 영터리처럼 보이

지만, 웬만한 건 다 통해요.”

또한, 은퇴이주자들의 취미생활 역시 MM2H의 특징과 의미를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말레이시아 온다는 사람한테는 일단 저는 여기 온지 7년인데 이제 이 나라 사람들과 놀러 다닌 게 2년 밖에 안됐어요. 그 전에 골프를 한다든지 가까운 데 여행을 간다거나 낚시를 한다거나 그랬는데 취미 생활을 살려야 되요. 취미 생활도 없이 살면 갑갑하거든요 여기 회원권도 샀다가 팔았거든요 거기 가면 평일에는 한국 사람들이 다예요. 골프밖에 몰라요. (중략) 하지만 여기 와서 오래 살려면 무엇 하나 뚜렷한 저기 있어야 되요. 취미를 살리든지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할 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면 할 곳은 있죠. 영어를 잘 하든지, 취미를 잘 살리든지 해야지, 막연히 동경만 가지고 온다면 실패예요. 현지인을 사귀는 것을 한국인들은 정말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했어요. 영어도 배울 겸 영어로 페이스북도 하고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을 사귀었더니 지금은 200명 정도 돼요. 그 사람들과 등산만 가는 게 아니라 여행도 가고 3월 달엔 거기도 가요.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한국에서 안나푸르나에 가려면 최소 250만원 정도 드는데, 여기서 가면 100만원이면 갈 수 있어요.”

은퇴이주로 말레이시아를 결정하기에는 부부간의 동의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 경우는 아내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어요. 자식들과 떨어져 부부만 온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 골프 이런 거 말고 여가활동은 주로 교회에 나가든지 해요. 저도 여기 오자마자 하도 심심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사귀려고 한인교회라는 교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교회들 사이에 경쟁이 심해서 지금은 안 다녀요.”

하지만 교회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 교회는 말레이시아 생활 정보 교환의 장일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에게 말레이시아에서의 생활 적응과 정보와 자료 교류의 장이자 소통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에서 많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도 다녔거든요. 왜냐면 주말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교회에 가서 나쁜 짓은 안 할 테니까. 애들에게는 교회에 가라 해요. 애들이랑 가서 놀라고 애들이 거기를 안가면 놀데가 없어요. PC방밖에 없어요. 차라리 교회 가는 게 나아요. 애들한테 중요한 정보를 많이 주잖아요.”

나아가, 은퇴이주자들의 MM2H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MM2H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제 생각에 MM2H는 실례라기보다는 원래 의도를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고 봐야죠. 은퇴비자가 아닌 조기유학을 위한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봐야죠. 이제 MM2H는 비자 문제예요. 다른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매 1년에 1년에 해야 하죠 우리는 10년 치니까 애들 학교 다닐 때 오라 가라 귀찮게 안하고 그게 자녀가 24살까지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아직 큰애가 24살이 안 됐는데 바꾸래요. 학생비자로 바꾸래요. 고등학교까지니까. 11학년까지는 MM2H가 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바꿨어요. 작년에. 그러다가 MM2H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꾼 거죠. 그런데 그게 한국 사람들 편하게 하라고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한편, MM2H의 활성화를 위해선 대사관의 역할 역시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대사관에서 MM2H를 포함한 비자 문제를 빨리 빨리 해결해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비자 문제가 중요해요.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사관이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해요.”

그렇다면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특징과 의미는 무엇일까. 말레이시아로 은퇴이주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선 어떤 조건과 노후우가 필요한 것일까.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우선 말레이시아 생활 자체를 누려야겠죠. 글로벌한 경험이죠. 특히 애들한테는

글로벌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경험이지요. 한국에서는 우물 안 개구리인데 바깥세상을 저렴한 가격으로 경험하는 거죠. 건문을 넓혀주는 거죠. 은퇴이주도 하기 나름인 거죠. 저는 성공했는데, 실패해서 다들 가고,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놀려고만 하고요. 한국 사람들끼리만 놀려고 하고, 그리고 노는 방법을 잘 몰라요. 말이 안 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깐. 둘이 와서도 자기 취미만 살리고 같이 살 수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뭘 해도 자신이 없고 현지인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어울리려고 노력해야죠.”

다른 사례를 통해 MM2H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MM2H와 같은 정책은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이민정책 같은 거잖아요. MM2H 비자 받는 과정이 무척 힘들어요. 많은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한국 내 은행 잔고와 재정 상태 같은 것 모두 제출해야 하고, 범죄 사실 등이 모두 깨끗해야 되지요. 한 마디로 돈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외국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MM2H 비자를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은퇴이주는 광고가 널리 퍼져서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식당 운영으로 성공한 한 은퇴이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 사람들의 은퇴이주는 많지가 않습니다. (MM2H가 적용)되긴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쪽으로는 많이 안 오세요. 은퇴이주는, 한국 분들에게는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딱 두 분이 오셔가지고, 처음엔 좋죠. 처음에 2년은 되게 좋아하세요. 매일 골프장 가고 두 분이 손잡고. 그리고 이제 딱 넘어가면 되게 갑갑해 하세요. 친구도 보고 싶고,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 들어오는 횡수가 점점 적어져요. (중략) 그리고, 이 나라에는 교포 2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영주권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취직을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고 가라는 거죠. (중략) 나이 든 사람들은 골프 치러 와요. 은퇴이주로 MM2H 많이 했어요. 나이 많이 드시지 않고 적당하게 드신 분들은 은퇴 후 사업하러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사업 아이템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대해 잘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지나가는 소리로 사업이나 해보겠다고 하고 PC방 시작했다가 망한 경우도 많아요.”

이상의 언급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인들이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가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현지에서 체류자 신분이다. 그리고 현지에서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을 위한 사업 대상이나 사업할 만한 아이템이 풍부한 편도 아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V. 맺음말에 대신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특징과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것일까? 한국인들에게 말레이시아는 은퇴 이후 퇴직금으로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낙원인가? 아니면 말레이시아는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여행지에 불과한 것인가?

그들이 꿈꾸는 풍요로운 삶과 세련된 생활양식을 보장할 것으로 선전하는 말레이시아의 주거 환경은 한국인들로서는 좀처럼 꿈꾸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찾는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 매력적인 제안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이 그들의 은퇴 이후의 말레이시아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바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에게 MM2H는 양면성을 지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은퇴이주에 관한 많은 기사들은 동남아로의 은퇴이주를 통해 마치 귀족과 같은 생활을 꿈꾸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저버리라고 권한다. 자칫 낭패를 당하기 십상인 은퇴이주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답사나 관련 정보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이 선행될 것을 강조한다[15-17].

이와 같은 조언은 본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레이시아 거주 한인들의 면접에서도 은퇴 후 이민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특징과 의미를 고찰한 것은 관련자에게도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또 이는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를 현대 말레이시아의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 사회 내에서 고령화, 은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가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를 장려하는 것은 말레이시아의 다문화사회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다.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은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말레이시아로 은퇴이주를 떠나는 한국인 은퇴이주자들에게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를 위한 기초 자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은퇴이주의 특징과 의미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심층 인터뷰와 관찰 등의 연구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시도된 질적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기에, 관련 통계 자료나 표본 및 표집 조사, 빈도수 조사, 설문 조사,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 등의 양적 연구방법을 추가적으로 병행하지 못함으로써, 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아 있다. 이에 관해선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참 고 문 헌

- [1] 박공주, 김양희, 박정윤,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농촌 적응과정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5권, 제1호, pp.9-21, 2000.
- [2] 박공주, 윤순덕, 강경하,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제12권, 제4호, pp.63-76, 2006.
- [3] 윤순덕, 강경하, 박공주, 이정화,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제25권, 제3호, pp.139-153, 2005.
- [4] 윤순덕, 박공주,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정주에 대한 수요분석,” 농촌계획, 제12권, 제2호, pp.37-47, 성정현 외, 2015, 2006.
- [5] 김동엽, “동남아 은퇴이주의 실태와 전망,” 동아연구, 제57권, pp.233-267, 2009.
- [6] 스티븐 카슬, 마크 J. 밀러 공저,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일조각, 2003.
- [7] 마이클 새머스 저, 이영민 외 역, *이주: 21세기 경제·정치적·사회적·문화적 논쟁들의 중심 이주와 이민*, 도서출판 푸른길, 2013.
- [8] <http://blog.daum.net/khc0373/12019412> url. (검색일: 2014. 7. 8.)
- [9] 성정현, 홍석준, *그들은 왜 기러기 가족을 선택했는가*, 한울, 2013.
- [10] Laws of Malaysia. Immigration Act 1959/63(ACT 155), Regulations and Orders & Passports Act 1966(ACT150) and Orders (As AT 10th September 2013), International Law Book Services: Malaysia, 2013.
- [11] <http://blog.naver.com/esjpark?Redirect=Log&logNo=110130257712> url.(검색일: 2014. 7. 8.)
- [12] <http://blog.naver.com/esjpark?Redirect=Log&logNo=110133832048> url.(검색일: 2014. 7. 8.)
- [13] <http://blog.daum.net/khc0373/12019412url>.(검색일: 2014. 7. 8.)
- [14] 조선일보, 2006, “이민자들 동남아행 열풍, ‘죽기 살기로 일해 봤자 한국선 집 한 칸도...’ 박람회 5만 명 몰려 영어조기유학도 각광,” url. (검색일: 2014. 7. 8.)
- [15] 조선일보, 2008. “‘묻지마’ 은퇴이민, 잘못 결정했다 낭패,” url. (검색일: 2014. 7. 8.)
- [16] 중앙일보, 2006, “롯데관광, 동남아 실버이민 관심 고조에 따라 My Second Home 답사여행 출시,” url. (검색일: 2014. 7. 8.)
- [17] 한국일보, “제2인생은 길다, 해외로 은퇴 이주

봄: 필리핀·말레이시아 작년 3600명 선 귀족생활 꿈꾸면 실망, 현지화 필수,” url. (검색일: 2014. 7. 8.)

[18] 홍석준,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저 자 소 개

홍 석 준(Suk-Joon Hong)

정회원



- 1997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문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목포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관심분야> :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동남아시아의 사회와 문화, 문화인류학